

투데이 칼럼

운명을 바꾸는 스피치 생활

새해를 맞이하여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누구나 소원이 갖는 자신과의 말은 성공과 행복, 건강까지도 해결하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말 대로 되는 세상'이란 말을 자주 실감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윌리엄 제임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이론을 일찍이 발표하였다.

스피치(Speech)학에서 말의 능력을 중요시 하듯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성공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말투를 알아보자.

첫째, 당연한 말 당연한 일을 실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피치(Speech) 생활에서 상대방이 이야기하기 편하도록 웃는 얼굴로 듣고 맞장구를 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이고 당연한 기본상식이다.

이런 당연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성공이나 행복을 바라서는 안되고 작은 약속 이행에도 실천해보자.

둘째, 마음을 담아 진정한 스피치를 해야 한다. 언어위성성(言爲心聲)



김 양 옥 한국스피치치리더십컨설턴트 대표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말은 화려한 어휘와 현란한 화술로 치장하는 것 보다 말 속에 진심이 담긴 말이다.' 라는 의미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말은 '마음의 소리'라고 말씀하셨다.

말에 감동을 받는 것과 공감하는 것은 "청산유수(靑山流水)"같이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는 진정한 대화이다.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유창함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저의 딸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힘들고 더듬거려도 참석자들은 감동을 받는다.

셋째, 부드럽고 긍정적인 말투로 생활화 한다. 부자가 되고 호감 받는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만한 인간관계는 필수 조건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스피치(Speech) 기법'을 터득하면 된다.

인간관계는 결국 말을 주고받는 좋은 스피치 생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 받을 만한 말을 하는 것이며, 부담주지 않고 부드럽고 긍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아보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모르는 사람이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 해 보자.

상대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많은 매력적으로 하면 곧 바로 운세가 좋아지고 부(富)도 따라온다.

매력적인 말은 사람이 담긴 밝은 말, 배려가 담겨 있는 말, 배려가 담겨 있는 말, 기분 좋아질 만한 말, 격려의 말, 명쾌하고 듣기 좋은 말, 유머스런 말 등이다.

돈 안들이고 배움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무재칠시(無財七施)'라는 말이 있다.

그 중에서 '안시(眼視)' 얼굴로 '언시(言視)' 말로 베풀어라 는 말도 있다.

넷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칭찬의 말을 한다.

상대를 만났을 때 '똑똑하다, 대단하다, 최고여! 믿음직스럽다' 등의 말을 해보자.

주위 사람들이 결국 나를 따르고 내 편이 된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 주면 주위 사람이 나에게서도 거만히 있지 않고 복을 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스피치로 해결 안 될 일이 없을 정도로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가?

운명을 바꾸어 행복하고 싶다면 생활의 필수인 스피치 기법을 터득하고 실천하면 된다.

사설

전북도의 농촌 활성화 방침

전북도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삼라농정과 사람들이 찾는 농촌 실현을 위해서라는 소식이다. 체험관광 활성화와 농촌 생활 개선 등 68개 사업에 2,381억 원을 올해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농촌관광객 1백만 명을 달성하고 생생마을 885개소를 조성하고 귀농 인구 1만7,500 가구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전북도가 꾸준히 농촌의 발전을 위해 일해 온 터이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커져 나중에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관심이 크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북도가 해마다 연말이면 삼라농정의 효과를 말했지만 그래도 만족을 말할 수 준은 아니었다. 농가 소득이 올랐지만 농민들의 소득 체감은 예전 그대로인 까닭이다. 이같은 사실은 전북도의 삼라농정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다 농촌 환경이 좋아졌다고 보도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농촌에 해당되는 풍경은 아니다. 도내 농촌 인구가 늘지 않고 있음이 그것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농촌 인구가 현상 유지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전히 희망 사항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농업의 전망이 밝다고 외쳐봤자 경쟁력이 없거나 약하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나 경쟁력이 지금과 같지 않고 훨씬 더 강해 된다면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귀농하는 젊은이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희망의 불씨가 있다. 그러므로 전북도가 이번에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 다시도 당부하는데 전북도는 삼라농정에 더욱 힘을 기울여 전북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겠다.

전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오랜 농도였으므로 그 이름값을 해야만 한다.

전북도는 농업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전북 농산물에 대한 홍보 작업이 활발해져야겠다. 전북도가 노력했지만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꾸준히 홍보하고 널리 알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니까 말이다.도내 농민들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전북도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넓게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독자제언

보이스피싱, 미리 예방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자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란 단어를 너무나 자주 듣고 접하다보니 주민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을 하다보면 "우리가 더 잘 안다"며 경찰관의 설명에 오히려 웃으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만큼 더욱 진화하고 지능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벽한 대처,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전화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기관은 없으므로 절대 전화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말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납치관련 보이스피싱 전화가 올 경우, 침착하게 주변 지

인들을 이용, 납치대상자가 안전하지 확인부터 해야한다.

끝으로, 보이스피싱은 이미 개인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당황하지 않아야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은 보이스피싱이나 의심스러운 전화라고 생각이 든다면 전화를 끊고 112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당황하지 말고 112를 통해 차근차근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예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 이를 대처하길 희망해 본다.

백영섭 고경형철서 흥덕파출소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원조 환영합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원조를 거부하며 국경을 폐쇄해 군인들이 콜롬비아-베네수엘라 국경 티엔티다스 다리를 지키는 가운데 한 여성이 "원조 환영"을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향한 미국의 원조 물품이 국경에 도착한 가운데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들은 마두로의 국경 폐쇄에도 미국의 원조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금융기관 유치 경쟁 좋은 결과 기대 한다

전북의 발전 현안을 정부의 관심 대상으로 끌어올려야겠다.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에서 광역 시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도지사가 했던 말이 다시 생각난다. 도지사는 그 자리에서 혁신도시의 발전을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 그게 정부의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하려면 다른 광역시도의 현안들보다 더욱 돋보여야 한다. 돋보이게 하는 노력이 치열하지 않다면 다른 지역의 현안에 밀릴 수도 있다. 이것은 때가 때인지라 부산시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전북도가 발전구상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음에도 그게 도민들을 상대로만 발표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시일이 상당히 지난 후에도 대중소이한 비전들이 반복해 발표되고 있는 까닭이다. 역대 정부들이 전북 발전 현안과 관련해 풍선 날리기를 반복했던 것을 삼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이지 풍선만 날려가지고는 혁신 도시에 발전성이 시원스럽게 전개될 턱이 없다.

정부가 전북 발전을 약속한 것

은 사실이지만 그걸 골이골대로 믿어 백 포로 순조롭게 전개되리라 생각하면 안된다. 전북도는 중심을 잡고 예의 주시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혁신도시의 발전 현안을 정부의 중요 관심사로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한다. 앞으로 혁신도시를 금융 허브로 키우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번에 전북도가 KDB 산업은행과 IBK 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유치를 놓고 부산광역시와 한 판 겨루게 되었는데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겠다. 혁신도시 발전 현안을 정부의 관심의 대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는 뚜렷하다. 발전의 성취는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지역발전용 항상 중심 주제로 삼아야 한다. 전북도는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내에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그러므로 지역 발전을 위해 도지사와 브레인들이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다른 광역시도의 단체장들과 브레인들보다 더욱 힘차게 부단히 뛰어야 한다는 당부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